

‘친문 싱크탱크’ 본격 활동... 정치권 파장일 듯

‘민주주의4.0연구원’ 오늘부터...현역 국회의원만 56명 참여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활동 방점...친문계 조직화 시동 시각도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이 22일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대선 정국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친문의 뚜렷한 대권주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친문의 결집과 행보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적 부활’에 실패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이후 친문의 움직임에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당내 대권주자들은 ‘단순한 정치 모임’이라며 선을 그치고 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겸한 제1차 심포지엄을 열었다.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했다. 특히 ‘부영이모임’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윤호중, 정태호, 김영배 의원 등 친문 주류들이 다 같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재승 KAIST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부동산 시장 대응, 기후

변화 이슈, 기본소득 논의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했다. 정재승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민주주의를,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성장 위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 등 급박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친문계가 조직화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유력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최근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정체된 현상과 연결 지는 시선도 있다. 자체 세력화한 친문계가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지원할 경우 대권 구도에 파장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연구원에 대해 “탄핵 이후 높아진 주권자 의식과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에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논쟁하고 논의하기 위한 연구 단위”라며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정 주자를 지지할 것이라는 오해를 사거나 당내 ‘원팀’ 기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 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도종환 이사장 겸 연구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분간은 정책 활동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선 광주일보

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도 친DJ 표명이 만들어졌다. 너무 (민주주의4.0 연구원) 모임을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된

다”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들도 다수 민주주의4.0 연구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공수처법 개정 갈 길 간다

연내 출범 목표...국민의힘, 총력저지 장외투쟁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갈등이 정국을 휘감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주요 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도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치국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2일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이다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확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며 “더는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연내 출범이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 트랙 사태로 보고, 결사 저지할 태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권 말기에 자기를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세우고, 완장 찬 검사, 홍영병 수사관들을 시켜서 온 나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카드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靑 “개각, 추측 대신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

청와대는 22일 개각 임박 관측과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외에는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구한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개각을)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

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장관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는 최근 김외식 청와대 인사수석 을 만나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문 대통령을 독대하고 개각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개각 폭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문 대통령이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용빈·민형배 “첨단지구 복구 편입 반대”

“구간경계조정, 균형발전 역행... 시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22일 광산구 첨단1·2동의 복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의 내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제6차 회의에서 광산구 첨단1·2동을 복구로 편입시키는 중폭 개편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는데 기획단 총 42명의 준비기획단 중 29명이 참석했고, 3차례

나 투표해서 겨우 17명이 찬성했다”면서 “전체 기획단의 절반도 찬성하지 않은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경계조정이 오히려 복구 인구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 중폭 개편안은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다”며 “첨단1·2동에 위치한 대학과 산업단지, 병원과 연구시설, 복지시설,

체육공원시설 등 광산구의 핵심 기반시설이 몽땅 복구로 편입된다.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준비기획단은 (내부)투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 의견 수렴’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더욱이 기획단은 경계조정안을 밀어붙일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 의원은 “광주시는 준비기획단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경계조정안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 전 靑 수석, 광주 군 공항 이전 토론회

오늘 유튜브 ‘강기정 TV’ 생중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민간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전 수석은 23일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공항을 시작으로’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유튜브(강기정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강 전 수석이 기초 발제를 한 뒤 김준하 광주과

학기술원 교수의 진행으로 김주승 경북 의성군수, 이병택 전남대 교수, 김원이(전남 목표) 의원,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토론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 축사를 한다.

강 전 수석은 광주·민간 공항의 전남 이전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광주·전남의 통합 공항으로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공항을 전남 서남권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반대 여론에 부딪던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최권일 기자 cki@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2021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미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공과대학 4호관 202호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 일시	2020. 12. 3.(목)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전환경쟁융합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담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적사항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G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